

# 해외동포의 포교가 더 절실하다

## 16~18일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 대회

조계종 및 각 종단의 국제포교사들이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국제포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7월 16~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10차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교사 대회에는 조계종, 회원종단, 해외거주 포교사, 실무진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포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해외 국가의 성공적 포교사례, 해외포교의 동향 파악, 국제포교사의 정보공유 등 국제포교사의 동기부여와 재교육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해외불교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동국대 티벳 대장경 연구소 계세 텐진 남카 스님의 티벳 불교에서 배운다-티벳 불교의 현황과 해외포교 성공 사례 △미국 이종권 포교사의 미주를 중심으로-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한 포교사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제10차 국제포교사대회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이 행사 첫째날 불화그리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종단협의회

계세 텐진 남카 스님은 강연에서 “서양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과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특히 서구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불교신자가 되고 있다. 사성제를 바탕으로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카 스님은 “앞으로 한국불교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세가지

모두 교리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권 포교사는 현재 해외포교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설명했다. 이종권 포교사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교보다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이 더 절실한 상

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포교사는 “현재 미주지역의 사찰은 90여개에 불과하지만, 교회는 4000여개가 넘는다. 이것은 정에 굶주린 동포들이 교회라는 장소를 사 람들과의 만남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관습대로 한국 식 포교를 이어가자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문화콘텐츠가 풍부하다. 미디어 영상매체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 교 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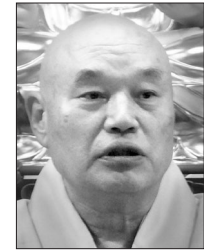
행사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템플스테이 활성화와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발 △이주민 지원활동 △국제포교사 역량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포교사회 박상필 회장은 “토론 시간 등을 통해 여러 포교사분들의 고충과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포교사 대회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어 좋았다”며 “국제포교사는 부처님이 신어 놓으신 씨앗들이다. 앞으로 이 분들의 활동이 점차 발전돼 한국불교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불교만한 가르침 없어”

## 무비 스님, 행불선원 초청 법문



“세상엔 많은 철학과 주장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불교만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무비 스님(사진)이 7월 18일 행불선원(원장 월호)에 이달의 선지식으로 초청 돼 불교의 우수함에 대해 법문했다.

무비 스님은 “불교의 성격과 특징을 알고 나면 불교를 선택하지 말래도 선택할 것”이라며 “세계생생 내 의지처가 될 종교에 대해 잘 알고 몸·마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가 왜 우수한가?라고 자문한 스님은 “불교는 궁극적 차원의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 무비 스님은 살불살조(殺佛殺祖)를 예로 들어 법문을 이어갔다.

스님은 “임제(臨濟) 스님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한 것은 살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스승이나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나 그것을 보는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경계를 정해 놓고 여기까지가 ‘나’라고 고정 짓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며 “내 인생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정 자신의 삶을 힘껏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비 스님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되찾는 수행방법도 제시했다.

스님은 “우리가 2700년 전 부처님을 닮아 가려면 ‘그렇구나’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이해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감사해야 한다”며 “2700년 전 부처님 말씀과 수많은 경전을 요즘 식으로 가장 쉽게 풀이해 놓으면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박선주 기자

# 3000배 철야정진 모연기금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기금 7800만원... 47명에 치료비지원



7월 20일 박태관 군이 입원해 있는 동국대일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조계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과 이상벽씨가 박군의 쾌유를 발원하며 기도를 올렸다.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정진’ 모연기금이 환우들에게 회향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에서는 7월 20일 동국대일산

병원에서 난치병어린이가 돕기 3000배 철야정진 모연기금 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5월 1~2일 ‘제10회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실시해 모인 780만원의 기금이 47명

의 환우들에게(100~400만원)전달된 것. 의료비 전달식은 상임이사 대오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 이상벽 씨, 동국대일산병원 구병서 한방병원장, 사회사업팀 남미현 실장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박태관(14·남) 군을 만나 의료비를 전달하고 쾌유발원 기도를 했다.

박태관 군은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을 앓고 있다. 박 군에게는 4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

대오 스님은 박 군의 팔에 염주를 채워주며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가 중환자실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관 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태관이를 위해 기도하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 한암사 웰빙 108배

### 클럽 창단식

“진리의 길을 가는데 가장 방해요 인인 자만심을 꺾는데 절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건강이 화두인 요즘 108배를 하며 건강을 지키고, 젊은이들이 찾는 절을 만들기 위한 클럽이 결성됐다.

불교계 최초 건강 클럽 ‘웰빙 108배 클럽(회장 김남성)’은 7월 22일 천안 쌍용동 한암사(주지 원철)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 웰빙 108배 클럽은 108배 생활화, 청소년 선도와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번 창단식은 환영사, 대회사와 함께 웰빙 108 클럽 창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온 자문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회칙을 통과 시켰다. 행사에는 월철 스님, 한암예술단 차경희

# “108배 통해 무한에너지 느낀다”



웰빙108클럽의 회원들이 창단식이 열린 7월 22일 한암사 큰법당에서 백팔대 참회로 DVD동영상을 보며 108배를 하고 있다.

단장, 웰빙 108배 클럽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원철 스님은 환영사에서 “종교와 무관한 신행모임이 원단이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차와 침향이 늘 준비돼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 쉬어가라”고 말했다.

웰빙 108배 클럽 김남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108배의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이정원 자문위원(한국동서발전

감사는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주는 한암사를 즐겨 찾는다. 그는 “108배를 통해 부처님을 모시고 건강도 챙기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에 사람을 만나고 겸손함까지 배울 수 있는 이 클럽이 들불처럼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창단식이 끝나고 회원들이 백팔대 참회로 DVD동영상을 보며 108배를 실시했다.

조세형 집행위원은 “절은 자신을 무한히 낮춰 아만과 교만을 없애고 순수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동작이다. 108배를 통해 삶의 가치를 알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고 말했다.

웰빙 108배 클럽은 지역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회비는 월 1만원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041)592-4747-8 박선주 기자

# 天雲堂 尚遠大宗師

## 영결·다비식 봉행에 대한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7월 14일(음 6월 3일) 입적하신 天雲堂 尚遠大宗師의 영결·다비식을 7월 18일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도는 스님의 청정한 수행가풍을 잇고 “중생 속에서 정토를 성취하고 대홍사 교구를 전법과 보살행의 복건으로 가꾸라”는 유훈을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54년 7월 22일

天雲堂 尚遠大宗師 門徒一同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방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http://www.klle.or.kr)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Tel. 02)3147-2020, 02)393-5111

###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